

放射線 管理는

第 3 者의 손으로!

이것이 原則이다

趙 成 根 (韓原産 振興課長)

安全의 管理는 第三者에 시켜라!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방사선 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基本的 原則이다.

방사선 관리에서는, 이 원칙이 他의 경우와 다른 歷史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原子力開發, 核에너지 利用의 初期에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는 部門은 作業의 本流部門 즉 라인部門에서 독립한 第三者의 성격이 獨立部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명백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이 결론을 실시에 옮긴 결과 생긴 것이 保健物理 部門이며, 이 학문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保健物理學이다. 「保健物理」라는 말의 採用은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국제적으로 普遍性이 있음에는 變함이 없다.

그런데, 이 第三者 管理의 原則에 關한 反論(抵抗이라기 보다는 誤解)이 뜻밖에도 많다.

어느 研究者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 第 3 者의 管理者들은 百害일 뿐 一利도 없다」. 이 분은 연구실의 研究員이다. 원래 연구하는 사람은 他人의 간섭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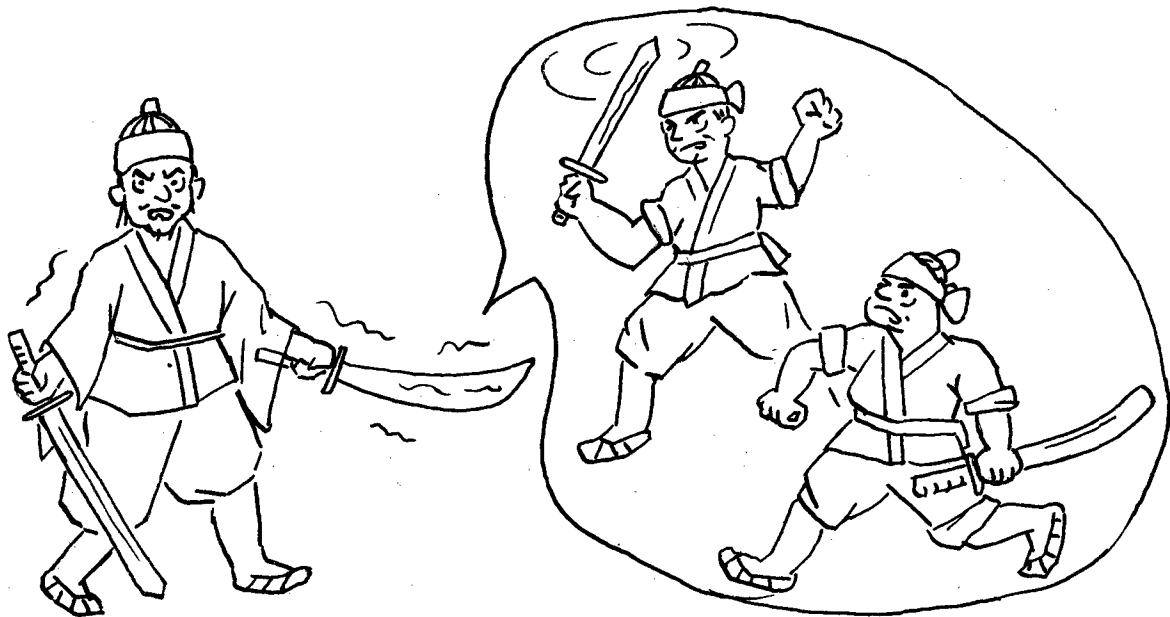
이렇게 豪言하는 이상, 이 분은 방사선을

취급하는 사람, 즉 이용자로서의 지식기술과 동시에 방사선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기술을 몸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분은 前者를 갖추고 있음은 當然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後者, 즉 방사선 관리의 지식과 기술이다.

兩者를 다같이 兼備해 있다면 이분은 「방사선관리 能力이 있는 利冊者」,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것 같기는 하나 「Control 할 수 있는 user」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Control 할 수 있는 user가 되는 노력은 쉽지 않다. 이용에 관한 지식기술은 日進日歩한다. 이것이 本職인 이분으로서는 工夫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관리의 기술이 百年一日이라고 생각하면 큰 과오이다. 방사선관리를 本業으로 하는 사람도 日進日歩하는 자기 領域의 기술지식을 따라가는데 숨이 가쁠 정도이다. 이와 같은 것이 한손에는 利用, 또 한손에는 管理라는 칼을 꽂 쥐고 있는 이분에 대해 설복하는 첫째 이유이다.

방사선 관리라는 일은 이론이 아니고 實務이다. 時間도 要하며, 사람손도 필요하다. 이런것 저런 것으로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리고서도 그 수고나 시간이 一見



해서 원래의 일의 진행에 보탬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요컨데 그다지 멋있는 일은 아니다. 安全을 위해라고는 하나 원래의 일과 並行하면서 이와 같은 관리의 일을 어김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몸에 배기에는 두개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 하나는 적당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具備하고 있는 能力·性格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분은 研究者로서는 一流이나 이때까지 방사선관리의 實務에 대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관리의 기술은 스스로의 具備한 能力으로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이것이 머리를 숙이게 하는 두번째의 이유이다.

醫師이신 Y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他人에게 감시되면서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 듣고는 일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관리하는 쪽이 능률적이다.」 이 Y선생도 兩칼쓰기의 利點을 主張한다. 한가지의 고집이다. 이 Y선생은 주로 X선을 이용해서 진단·

치료를 하고 계신다. Y선생에게는 X선, 즉 방사선의 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또 선생님에 있어서도 興味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지식·기술의 習得에는 대단한 熱意와 努力이 경주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余分の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관리에 대해서 같은 關心을 Y선생이 나타내리라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Y선생은, 利用과 管理하는 兩칼을 同時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시나 양손에 있는 2자루의 칼은 같은 크기가 아닌 것 같다. 오른 손에는 「利用」이라는 큰 칼, 왼손에는 「管理」라는 조그마한 칼이라는 것 같다. 왼손에 있는 칼이 그래도 작은 칼이면 좋으나 이것이 연필쥘는 칼정도일지도 모르겠다. 칼재주도 할 줄 모르는 兩칼잡이는 품은 근사하나 박력이 없고 위험하다.

Y선생은 역시 오른손의 「利用」이라는 큰 칼을 관운장의 靑龍刀쓰듯이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管理」의 칼을 援兵의 칼로서 助力을 바라는 것이 좋겠다, 「援兵은 필요없다」라는 고집은 곤란하다.

企業經營의 쓰라림을 몸에 익힌 젊은 경영자인 Z氏는 흥분한 얼굴로 발언한다. 이분의 말을 要約하면 「管理部門을 獨立部門으로 하면 사람손이 더 든다. 省力化를 요구하는 기업속에서 이것은 상당한 곤란을 수반한다. 우리 회사에서도 최근에는 방사선 관리 부문의 要員의 감소를 意圖해서 管理의 一次 責任과 그 업무의 分担을 個個의 作業者에 이양하는 방침을 정했다」라는 것이다. 현장 경험에 밀착한 것인만큼 發言에도 迫力이 있다.

“조금 어려운 表現으로 말하자면 Z氏는 자기의 소속인 회사의 放射線 管理를 中央서비스 方式에서 責任分担方式으로 移行시키려고 하고 있다. 責任分担方式으로의 變更은 管理를 第3者에게 시킨다는 원칙과는 合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原則이다. Z氏의 회사의 경영결정에 따른 검토가 일단 필요로 할 것이다.

細密한 點은 빼고서 Z氏에게 다음의 點을 助言하고 싶다.

첫째로, 第3者 管理의 원칙의 必然性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 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 하고 있다. 반드시 무엇인가 무리가 생길 것이다. 이 무리를 메우는 데는 당연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敎育과 訓練이다.

이 夢이 똑바로 行해지면 원칙과 다른 形式을 取함도 가능하다. 手고·시간·돈을 들이지 않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기려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둘째로, 責任分担 方式으로 하였을 경우, 방사선 관리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과 기술과 실행능력을 가진 스탭 또는 스타트·그룹을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조직상 어느 위치에 두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이와 같은 스타트가 없을 때는 이 변경은 새로 검토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셋째로, 변경에 있어서는 그 계획 立案段階에서 충분한 검토를 행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훌쩍 바꾸는 것은 禁物이다. 당신은 경영자의 한사람이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나, 조직개선에는 그 立案단계에서 ① 목적의 명확화 ② 現行조직의 분석 ③ 이상적인 계획의 작성 ④ 이상적인 계획의 試行 ⑤ 단계적 계획의 作成 ⑥ 관계 用語의 통일 ⑦ 개선에 대한 저항의 克服이라는 순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조직관리論의 定石이다.

기업경영에 한하지 않고 管理者는 조직과 人事를 관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왕 관장하려면 심사숙고한 후 하시기를 바란다.



알기쉬운 原子力入門書

原 子 力

張 基 鎮 著

4·6版 / 191페이지 ₩ 2,000

原子力を 專攻하지 않은 一般工學徒, 原子力行政要員들 뿐만 아니라 一般人에 까지도 알기 쉬운 原子力の 이야기를 解説한 初歩的인 原子力の 入門書. 原子力研究所 研修院, 原子力工學科의 敎材 및 一部 原子力産業體의 社内 敎育用으로서 널리 採用되고 있음.